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 요셉 성월 · 사순 제1주일
제34권 15호(가해) 2014·3·9

[묵상]



저희가 하느님 말씀의 힘으로 사순시기를 지내게 하시어, 악마의 유혹을 이기고 부활에 이르러 성령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칫이 얹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유혹에 얹혀 살며 백 년까지 누리리라."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 되어 뉘이라도 있고 없고,
하느님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저녁미사(사순시기)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에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텍시오 디비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썩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3:00 오후 6:00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진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신임순 안나 (생)김지수 보나 & 김지에 크리스티나
주 일 낮 미사	(연)고준희 제임스, 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전시웅 요한, 김인숙 마리아, 정진영 & 윤희중, 권복남 모니카, 이용식 베드로 (생)김기준 안젤라, 박현주 카타리나, 김소연 프란체스카, 조화숙 안젤라, 민석준 토마스 & 미애 가정 & 민영준 마르코, 현시영 요셉, 박인식 토마스 & 박기원 리더아 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창세기(Genesis) 2,7-9;3,1-7

화답송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 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씀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주님, 재입술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제 2독서 로마서(Romans) 5,12-19<또는 5,12,17-19>

복 음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환호송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복 음 마태오(Matthew) 4,1-11

영성체송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49	149	156
봉헌	Amazing Grace	268	268
성체	Be not Afraid	284	289
파견	153	155	149

올바른 성모신심

제4장 잘못된 성모 공경

(2) 가톨릭 교회 안에서 빛나간 성모 신심들

나. 나주의 기적이나 사적 계시를 성역화하는 성모 신심

(이는 1985년부터 나주의 윤 올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신심 운동에 관한 내용이며, 그들이 발표하고 선전한 여러 자료를 참조하였다.)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는 그리스도 신앙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마리아신심에 멈출 수 없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을 중재하시는 분이시지만 성모 마리아께서 그리스도보다 우위이실 수 없다. 그리고 발현 목격자가 성모 마리아보다 더 위대하거나 중요할 수 없다. 이러한 기준에서 교회는 발현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한다. 무엇보다 그것을 판단하는 책임자는 소속 교구의 교구장이다.

둘째, 공적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 그들이 주장하는 사적 계시는 그와 같은 공적 계시를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것일 수 없다. 그들의 모든 사적 계시는 이미 기록된 것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셋째, 입에 모신 성체가 사람의 살과 피가 되었다는 기적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합하지 않는다. 교회 문헌은 사체의 축성으로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로 '실체 변화'한 후에도 그 형상은 여전히 빵과 포도주이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사람의 살과 피의 형상이 아니라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다.(1코린 11,23-27 참조). 2000년 전에 하느님의아드님께서는 나자렛의 마리아를 통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이제 주님은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넷째, 하늘에서 성체가 내려왔다고 하는 주장은 유효하게 서품된 사체의 축성에 의해서만 성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르침에 위배된다. 그들은 천사가 하늘에서 성체를 가져왔다고 하고, 또는 죄 많은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이는 가톨릭 교리의 사효성(事效性)을 부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사의 유효성은 성사 집전자의 성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하느님을 체험하거나, 신비 현상에 접한 사람이 취해야 할 가장 첫 번째 태도는 겸손이다. 겸손이 결여된 체험이나 현상은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여섯째, 나주의 이 모임은 외국에까지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곳이 성지인 것처럼 순례하려고 찾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교도권에 순명하지 않는 그릇된 신심 행위에 대한 바른 인식과 사목자들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계속>

참인간이 되신 하느님

인간이 되신 하느님, 예수님은 인류 구원사업을 앞두고 광야로 가서 사십 일 동안 힘든 준비를 하십니다. 위에서 끌어올리는 일방적인 구원방법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함께 올라가는 구원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를 위한 광야의 준비는 인간의 삶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인간 적응훈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훈련과정은 육체의 유혹을 이겨내는 과정입니다. 테니스 시합에서 지고 나면, 앉아 쉬지 않고 서서 쉬는 친구가 있습니다. 몸을 벌하기 위해 그렇게 한답니다. 우리 몸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영혼을 다스리려면 우선 몸부터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인간 몸의 욕구 중에 가장 큰 것 세 가지는 식욕(食慾)과 성욕(性慾)과 수면욕구(睡眠欲求)입니다. 모두 필요한 것들이지만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음식을 지나치게 탐하고, 성욕을 통제하지 못하고, 나태하게 잠만 잔다면 하느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과정은 교만을 없애는 훈련입니다.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지만 하느님 앞에서는 역시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하느님마저도 자신에게 시종드는 분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되면 자기 탓, 못되면 하느님 탓, 때로는 하느님이 없다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내가 존재하고 지금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 모두 하느님의 섭리인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참인간으로서 한계를 인정하며, 하느님의 정당한 권위에 머리 숙여 복종하십니다.

세 번째는 헛된 우상에 대한 유혹을 이기는 훈련입니다. 인간 세상에는 명예와 권력과 금력에 의지하여 쉽게 일하려는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

상의 요령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하느님 뜻을 따르는正道(正道)를 택하십니다. 하느님 뜻은 바로 사랑입니다. 명예와 권력과 돈에 의지하여 일하면 일은 쉽지만 사람이 다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일하면 일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사람이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 적응훈련을 통해 인간이 쉽게 굴복하는 유혹들을 물리치십니다. 원조 아담이 유혹에 빠져 인류가 길을 잃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유혹을 물리치는 참인간이 되심으로써 몸소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인간이 되심으로써 인간이 시달리는 유혹도 깊이 이해하고, 인간을 몸과 마음 전체로 사랑하며,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도 유혹을 물리치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도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마주치는 유혹들은 유혹같이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집요할 수가 없으며,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눈도 뜨고, 마음의 눈도 뜨고, 겸손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유혹의 천적은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고찬근 신부 /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 주임

고통, 살아나다

고통이란 게 싫다고 피해지는 것이라. 피할 수 있다면 이미 고통이 아니지. 잔인하게도 고통만큼 솔직하고 사실적인 것이 없어. 얼마만큼이든 겪어내야만 벗어날 수 있어, 이 모든 고통이 어서 사라지길 고대하지만,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군. 그래서 혹독하게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말하지. 고통을 살아냈다고.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보나 보나	신덕레 데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2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호미 엘리사벳	이진향 아녜스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사순시기 †

-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저녁미사(7:30) 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아침미사가 저녁미사(오후 7시30분)로 변경되며, 미사후 전신자가 참여해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진행은 제단체가 맡습니다.
 - 사순 제1주간 금요일(3월14일) : 꾸리아
 - 사순 제2주간 금요일(3월21일) : 소공동체
 - 사순 제3주간 금요일(3월28일) : 요셉회
 - 사순 제4주간 금요일(4월4일) : 양엄회
 - 사순 제5주간 금요일(4월11일) : 대건회
 - 성 금요일(4월18일 오후 3시) : 본당 신부님
- ◆ 사순절 희생 애공봉투가 제의 수요일부터 준비됩니다.
 - 우리 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애공봉투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4월17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사순 특강 I, II

- **특강 I** 강사 : 심원택 토마스 신부님(부산교구)
- 주제 :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 일시 : 3월16일(주일) 오후 1시, 성전
- **특강 II** 강사 : 이동진 바오로 신부님(오순절 평화의 마을)
- 주제 : 꿈, Dream, Cum
- 일시 : 3월19일(수) 저녁미사후, 성전
3월23일(주일) 오후 1시, 성전

◆ 요셉회 장수 사진 촬영 안내

- 일시 : 3월30(주일) 낮미사후 12시30분
- 장소 : 강당
- 촬영봉사자 : 한장환 안토니오
- 메이크업 봉사자 :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요셉회 월례회 : 예정대로 3째주일에 합니다.
- 연락처 : 정기은 비오 요셉회장 ☎(310)780-2789

◆ 예비자 교리반 모집 안내

- 을 성탄절 세례를 준비하는 새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주변에 아직 하느님을 모르고 사는 이웃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 모집 및 전교기간 : 3월~4월30일
 - 환영식 : 4월27일(주일) 낮미사후 강당
 - 교리시간 : 5월1일~12월18일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분~9시10분, 2층 교리실
 - 세례식 : 12월21일(주일)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복음화분과장 ☎(310)796-6960

◆ 제 73차 남가주 한인M.E. 첫 주말 신청받습니다.

- 일시 : 5월2일(금)~4일(주일) 2박3일
- 장소 : 샌퍼난도 소재 아시시 피정센터
- 수강비 : 부부당 \$400(숙박 및 식사비 포함)
- 신청마감 : 4월22일(화)
- 접수 : 백삼위 대표부부 정동호 하삼바오로 & 병옥 올리아 ☎(310)780-9055

◆ 백삼위 탁구동호회에 초대합니다.

- 건강한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백삼위 탁구동호회(백구회)에서 교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권유합니다.
- 연습 및 강습시간 : 첫째, 셋째주일 오후 1시 유아실
둘째, 넷째주일 오후 3시 강당
 - 친교점심후 바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용 스테파노 ☎(310)926-2248

미국영화 '하느님의 아들'(Son of God)

- * 할인티켓 : \$7(극장보다 \$1~\$2 쌉니다. 사무실 비치중)
- * 상영극장 : Gardena Cinema(14948 Crenshaw Bl. Gardena) 한글자막으로 상영중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3월9일(주일) : 토런스 동2반(소고기무국 \$3)
* 주일학교(1,2학년 칠리도그 & 나초)
- 3월16일(주일) : 토런스 서2반(북어국 \$3)
* 주일학교(킨더가튼 김치찌개참치+스팸)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구자운	김광자	김상근	김선제	김양금	김영경	성전헌금	구자운	김선제	김양금	김우용	김원모	김주량	
	김우용	김원모	김일선	김정웅	김종렬	김주량		김철민	김효진	박써니	박음전	박인식	박정희	
	김철민	김효진	박써니	박음전	박인식	박정희		박현주	방정복	변혜경	석순영	소성덕	원건희	
	박현주	방정복	배태임	변혜경	석순영	소성덕		윤희동	이경수	이근모	이복임	이석진	이은록	
	송재훈	엄영희	오일순	원건희	윤희동	이경수		장영우	조준제	주대종	최기남	최상만	최재은	
	이근모	이복임	이석진	이은록	장영우	전정일		최태훈	영희가보라					
	전정자	조준제	주대종	주영석	최기남	최상만								
	최재은	최태훈	영희가보라	합계 : \$3,980										
								합계 : \$3,300						
주일미사 헌금 : \$2,927							2차헌금 : \$1,196							
							감사헌금 : 안종현(\$1,000) 주보광고후원 : \$500(감사합니다.)							

공지사항

◆ 주일학교 '십자가의 길'(야외14처) 스케줄

- 오늘주일(9일): 3,4학년 ● 3월16일: 중등부
- 3월23일: 고등부 ● 3월30일: 5,6학년
- 4월6일: 유치부, 1, 2 학년

◆ 주일학교 신약성경 복음서 쓰기 경연대회

- 제목: 루카복음(영어), 노트 제공
- 대상: 3학년~12학년
- 필사마감: 4월13일까지 담당 교리교사에게 제출
- 시상: 부활대축일 미사중(4월20일)

◆ 주일학교 교사 종교교육 컨퍼런스(RE Congress)

- 일시: 3월14일(금)~16일(주일), 애나하임 컨벤션센터
- 참석교사: 김낙기 바오로, 남 스텔라, 오 보나, 서정우 프란치스코, 이진원 루시아, 이인석 비오
-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중등부 사순 피정

- 일시: 3월21일(금)~23일(주일)
- 장소: Oak Glen 크리스천 컨퍼런스센터(39364 Oak Glen Rd, Yucaipa, CA 92399 웹사이트: www.oakglen.org)
- 대상: 7학년~8학년
- 참가비: \$60
- 준비물: 성경, 묵주, 슬리핑백, 재킷, 세면도구, 학교티셔츠
- 문의: 남스텔라 중등부 교무주임 ☎(310)918-3324

◆ 고등부 사순 피정

- 일시: 3월28일(금)~30일(주일)
- 장소: Oak Glen 크리스천 컨퍼런스센터(39364 Oak Glen Rd, Yucaipa, CA 92399 웹사이트: www.oakglen.org)
- 대상: 9학년~12학년
- 참가비: \$60
- 준비물: 성경, 묵주, 슬리핑백, 재킷, 세면도구, 학교티셔츠
- 문의: 김낙기 바오로 고등부 교무주임 ☎(310)709-3343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LA 성 아그네스 성당 사순피정

- 일시: 3월9일(주일) 오전 11시~오후 2시20분
- 강사: 임언기 신부(미리내 천주성심 성직수도회)
- 장소: 아그네스 성당 회관 * 대상: 전신자
- 문의: 성당 사무실 (323)731-4433

◆ 작은 예수회 LA분원 공동체를 위한 '함께 삶의 기쁨을'

- 공소예절: 3월15일(셋째토요일) 오전 11시(Soma Club협연)
- 장소: LA 작은 예수회 장애시설(1137 Arapahoe St. + 올림픽)
- 점심나누기: 낮 12시
- 문의: ☎(213)820-6535 김윤희 소화대테사 수녀

소공동체 3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욱 율리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김광자 엘리사벳 988-9925 3/15(주일)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신중철 아브라함 936-9202 3/8(토) 오후 7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3/14(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이우성 요셉 793-0915 3/15(토) 오후 6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박상원 야고보 999-5808 3/15(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정정현 베네딕타 995-6342 3/14(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대테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3/21(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대테사 951-4710 3/11(화) 오전 11시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3/8(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욱 율리아 404-1607	박정희 마리아 800-3709 3/10(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조소영 수산나 804-7645 3/9(주일) 오후 5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송재훈 필립보 213-700-6983 3/8(토) 오후 7시
	2	금유미 크리스시아 482-9108	배진영 프란치스코 482-9108 3/15(토) 오후 7시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정판영 레오 818-1799 3/14(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이은미 가브리엘라 617-3588 3/11(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다음 주 단체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2014년 사순시기 교황 담화문(요약)

**그분께서는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가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 세상의 힘 있고 부유한 모습이 아니라 약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영광을 벗으시고 자신을 비우시어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필리 2,7; 히브 4,15 참조)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는 모두 하느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은총이고 너그러움이며 가까이 하려는 열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일하시고 인간의 정신으로 생각하시고 인간의 의지로 행동하시고 인간의 마음으로 사랑 하셨습니다.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어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셨으며, 죄 말고는 모든 것에서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사목 헌장 22항)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의 논리, 곧 사랑의 논리, 강생과 십자가의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부유하게 해 주시고자 택하신 이 가난은 무엇입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나약함과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난은 가장 큰 부요입니다. 예수님의 부요는 그분이 아드님이시라는 데에 있으며, 아버지와 맺으신 유일한 관계가 이 가난한 메시아의 최고 특권입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가난을 통하여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부요는 우리의 부요를 통하여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에 힘입어 실천하는 우리의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가난을 통해서만 전해집니다.

빈곤은 가난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빈곤은 믿음과 연대와 희망이 없는 가난입니다. 이 빈곤에 맞서 교회는 도움을 주면서, 곧 봉사(diakonia)를 하면서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인류의 모습을 훼손시키는 그 상처들을 감싸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봅니다.

복음은 영적 빈곤의 참된 해결책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이 해방의 소식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비와 희망

의 메시지를 기쁘게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순시기에 교회 전체가 물질적, 도덕적, 영적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메시지를 증언할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가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되도록 하신 그리스도를 닮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힘입어 우리는 “가난한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2코린 6,10)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의 결심을 굳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간의 빈곤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키우도록 도와주시어, 우리가 자비로워지고 또 자비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한국순교자들은 얼마나 될까?

☞ 순교의 원래 의미는 목숨을 바쳐서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를 말한다. 순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곧 순교는 실제로 죽음을 당해야 하고, 그 죽음이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진리를 증오하는 자에 의해서 초래되어야 하고, 그 죽음을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진리를 옹호하려고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땅에 천주교가 창설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던 백여 년간의 박해기간 동안 순교자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박해시대의 순교자 숫자를 적어도 1만 명 내외라고 알려져 왔다. 이는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1866년 병인박해 8천여 명을 비롯하여 그 이외의 박해들을 통해 2천여 명이 순교한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료에서 나오는 순교자 숫자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이름 모르게 순교한 무명의 순교자들까지 추정하여 나온 숫자이다. 심지어 정교, 황현, 박은식을 비롯한 구한말의 인물들은 순교자의 숫자를 2만여 명에서 12만여 명까지로 저마다 다르게 추정하여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조광 교수는 자신의 글(경향잡지, 2001년 1월호)에서 자신이 직접 순교자의 명단에서 확인한 순교자의 숫자를 1860명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전체 순교자의 숫자를 2천 명 전후로 보고 있다. 그러나 1874년에 간행된 달레(Dallet)의 『조선천주교회사』에서는 “1868년 9월에 벌써 박해에 희생된 사람이 2천 명이 넘었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2천 명은 족히 넘은 것으로 추정되며, 기해박해까지 순교자를 700명이상 『(한국천주교회의 성찰』 p.268~269)으로 본다면 적어도 3천 명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

◆전수홍 신부 / 부산교구 오륜대 순교자 성지 담당